



## 2017년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수도회의 성인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본보기이고 모범이며 전구자로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도미니칸 영성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달에 우리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뒤흔들고 회개와 쇄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성인 성녀들... ‘나카리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하며 용감하게 성덕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점점 더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일반 알현, 2010년 11월 24일).

성녀 카타리나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온전히 인간적이면서 온전히 하느님과 교회의 것이었던 한 위대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굳건함, 자애로움으로 자신이 속한 도미니코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에 따라 교회의 일치를 염려하고 그럼으로써 화해의 촉진자가 되었던 한 여성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행동과 말에서 언제나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했고, 늘 교회의 선과 일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과 생각은 성녀를 도미니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이콘이 되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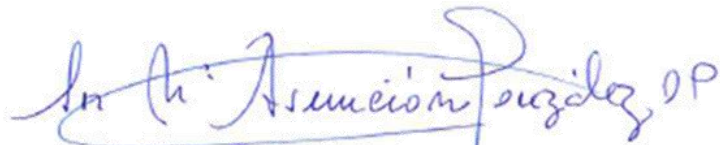
특히 이 4월에, 베네딕토 16세를 계속 인용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에게서 용기있고 강렬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기를 배웁니다.”

“하느님 섭리의 대화집”에서 읽을 수 있는 성녀 카타리나의 말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합시다. 다리아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장의 결론에서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비하심으로 당신 피로 우리를 씻으셨고 피조물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 미친 사랑이여! 육화하시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 죽는 것까지 원하셨습니다... 오, 자비여! 제 마음은 당신을 생각할 때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자비를 발견할 따름입니다.”

이 강하고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던 여인은 우리에게 도미니칸으로서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이들이 되도록,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조하시듯이 가장 곤궁한 이들에게 자비를 전하고 또한 신앙과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치를 촉진하는 이들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들이 기쁨을 전달하는 이들이 되고 평화를 전하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매 성녀 카타리나 축일을 맞아 인사를 보내며,



총장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Feijóo, O.P. 수녀